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4월 21일)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극복 원력 불자 보시행 빛났다

동행 코로나19 모금 결과 살펴보니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던 시기, 가장 소외되고 힘든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불자들의 정성이 빛을 발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결과 단 79일만에 8억 9240만원이 모연됐다. 이는 고성산불 피해복구, 세월호 희생자 지원 등 그간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국내 긴급모금 중 최고액수다.

특히 이번 모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인동참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체 동참수 1612건 중 개인동참자 수는 1467명으로 집계됐으며, 법명으로 동참한 스님 동참자 20명을 포함하면 1489명으로 전체의 92.2% 수준이다.

이어 사찰 동참이 88곳(5.5%)으로 확인됐으며, 기업이 22곳(1.4%), 단체 16곳(1%) 순으로 집계됐다. 사찰과 단체 후원 역시 신도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후 총액을 전달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긴급모금은 그야말로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모금방식 또한 기존 CMS, 자동이체 등이 아닌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그간의 긴급모금은 사찰 차원의 동참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번 코로나 모금은 사찰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봉행하지 않은 시기에 진행돼 개인모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더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모금액은 사찰 후원이 약 3억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계종 교구본사부터 타종단 사찰까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상당수가 신도들의 자발적 모연으로 마련된 성금에 사찰 재정을 일부 보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를 단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여파로 재정 타격이 컸음에도, 소외이웃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감동을 전했다.

대표적으로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는 본사와 말사, 자원봉사단과 신도회 등 교구 사부대중 차원에서 모연활동을 전개한 결과 8750만원을 전달했으며, 14교구본사 범어사와 한마음선원도 내부 모연을 통해 각각 3000만원, 4200만원을 기탁했다.

단체 후원 역시 국회 정각회, 조계종 종무원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이 사전 모금을 통해 정성을 모았다. 해피베이비어린이집 등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마음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신학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취지인만큼 종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79일 만에 8억 9240만원
국내 긴급모금 중 '최고액'
개인 동참율 91%에 달해
"어려움 극복 후원 집중"

대구 · 병원에 기금 사용돼
향후 소외계층 지원 계획

이어 기업 후원은 약 2억 600만원, 스님 후원이 약 1억 6700만원, 단체 후원이 약 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후원은 약 1억 4400만원으로, 동참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로 확인됐다.

한편 긴급모금을 통해 모연된 기금 중 일부는 3월초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지역과 경북지역, 코로나 치료를 위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동국대 의료원, 중국 내 감염 예방물품 지원에 각 1억원, 경주지역에 3000만원이 긴급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남은 기금은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소외된 분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후원자분들의 정성을 깊이 헤아려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희망으로 전달하겠다"며 "긴급모금은 종료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기에,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후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회노동위원 스님이 기도회에서 영가를 위로하는 법고를 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 희생자 위한 기도 올립니다"

조계종 사노위, 7일 광화문 광장서 기도 입재

2월 20일 경북 청도대남병원서 장기입원환자가 고열 증세로 치료받던 중 폐렴 증세로 숨졌다. 국내 첫 코로나 첫 사망자였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총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애도는 이뤄지지 못했고, 사망 수치로만 기록됐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을 비롯해 법상, 지몽, 고금, 시경, 서원 스님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혜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나온 발언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사망자를 그저 공포의 숫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마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아픔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대에 쌓인 채 화장된 고인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도회는 15일간 이어지는 극락왕생기도의 시작이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비, 바람이 몰아쳐도 번갈아 가며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제대로 장례 의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별한 분들이 많다. 종단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외면당한 이들의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도회에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에 코로나 종식시기에 종단 차원의 천도재를 열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5000여 스님 재난지원금 기부

5월 1일 기부계획 공식 발표
종무기관 · 사찰 소임자 대상
공식 기부 의사 종교계 최초
文 "종교계 기부 의사 존경"

조계종 종무행정직 소임자 5000여 스님들이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키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5월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당국에 감사드린다"면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전국 본말사에서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 5000명은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종교계 단체 중 조계종이 최초다.

조계종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조계종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기부를 밝힌 불교와 종교계 등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발적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개월 여 간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 등을 중단해 왔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오색 10만등 장엄불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전쟁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희생된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그리고 남북 민간인 138만명의
넋을 위령·천도하고 해원과 상생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 10만 추모의 등(燈)불을 밝히고
수륙대재와 추모음악회를 봉행합니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64(2020)년 6월 6일 ~ 7일
장소 : 해인사 경내 일원
6월6일(토) 오전 10시 - 전쟁과 평화의 사진전, 사찰음식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저녁 7시 - 추모음악회
6월7일(일) 오후 1시 수륙대재
오색 10만등 장엄불사 동참 : 1인 1등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51-1117-9813-53(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法寶宗刹海印寺 문의 : 055) 934-3105~6 www.haeinsa.or.kr